

서울외신기자클럽 창립 50주년 축하 메시지

외신기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서울외신기자클럽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.

지난 반세기, 그 격동의 시기에 외신기자 여러분은 우리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. 언론을 통제했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우리의 정치와 인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.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 규모로 도약하는 데에도 여러분의 역할이 컸습니다.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외신기자 여러분,

언론의 영향력은 그 어떤 권력에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.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언론이 말하는 미래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. 언론의 도덕성과 절제, 그리고 민주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

언론인 여러분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에 힘쓰면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때 지구촌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.

한국은 역동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사회는 더욱 투명해지고, 민주주의와 인권도 한층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한국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그것은 아마 아주 정확한 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, 즐겁고 보람된 한국 생활이 되시기 바라며, 외신기자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